

경상남도, 신·재생 에너지 기초인력 양성

경상남도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인력양성 사업에 나섰다.

그린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기초인력 120명 가량을 양성해 해당기업에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심 그린에너지인 풍력 55명, 태양광·열에너지 50명, 바이오에너지 15명 가량을 양성한다는 방침으로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서 주관하게 된다.

분야별 교육기관으로는 한국기계연구원부설 재료연구소(풍력), 경상대학교(태양·바이오에너지), 인제대학교(태양에너지)가 선정됐다.

교육 내용은 신·재생 에너지에 필요한 물리·화학·생물·전기·전자 등 기초이론과 풍력발전기 제작, 태양광 시설 설치, 바이오에탄올(Bio-Ethanol) 생산과정 등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습으로 구성돼 있다.

6개월 과정의 교육을 수료하면 관련기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마친 후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되도록 주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8/10>